

피고인 최후 진술서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23년 동안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서 기자로 근무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시작되던 2016년 10월경에는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조서를 읽었고, 이 사건에 연루됐던 TV조선 이진동 기자,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K스포츠재단 사업부장 노승일 등이 쓴 책과 피고인의 직접 취재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온갖 주장과 추측만 난무할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입니다. 언론의 광기어린 보도에 흥분한 일부 군중들이 광장에 나와 저지른, 이른바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어느 세계든 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아먹는 동물이 있으면, 잡아먹히는 동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어를 잡아먹는 범고래와 모기를 먹고 사는 미꾸라지와 닭과 지네의 관계가 천적입니다. 기자의 천적은 기자입니다.

피고인은 전직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왜곡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017년 10월 2일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여,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주제로 1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느닷없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이상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구속영장 시

호 만료를 앞두고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건 조작 문건을 발견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은 이 정권의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느 시청자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장 김세윤 판사를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나 저녁을 같이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청와대 대변인에게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지를 보냈으나 방송 시작 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기 위하여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닙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그리고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0. 6. 9.

피고인 우종창